

지역 소식통

부안군-곰소발효축제위
청렴 실천·마실축제 홍보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는 지난 21일 곰소갯길발효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욱)와 함께 곰소갯길센터에서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청렴 실천 캠페인과 마실축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갯길축제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여하여, 부안 청렴 5無운동(갑질행정, 불친절, 부당지시, 급급수수, 항응접대)의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5월 4~6일 개최되는 부안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를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광욱 위원장은 "부안이 청렴 1등급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곰소갯길축제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하며,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개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6개 기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 47명이 참석했으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용준)의 장애의 이해, 장애인 학대 알아가기, 학대신고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정읍시의 장애인구는 10,084명으로 정읍시민의 9.5%를 이룬다. 이는 전국의 평균 장애인구 비율인 5.2%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각종 사업확대 및 장애인권 보호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최종중 장애인과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며, 금회 미참석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경 2차 교육을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참뽕 반려동물 비누 출시

부안 농기센터, 한명에 생활비누 지원... 누에·죽염 등 향토자원 활용 비누 개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향토기업 농업법인 (유)한명에 생활비누에서는 트렌드 맞춤형 프리미엄 반려동물 비누를 출시하여 다양화 고급화를 시도했다.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뽕잎, 벌꿀, 프로폴리스, 누에 실크, 단백질, 죽염 등 원료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부안에서 자체 생산한 재료를 아끼지 않고 특별 담아 생산해오고 있다.

애견비누 패키지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애견 애묘 비누 4종의 디자인 개발과 제작을 위한 고무 몰드 및 친환경 종이 파우치 등을 지원해 개발했으며, '우다다'란 브랜드명은 반려동물이 뛰어다니는 걸음을 형상화했다.

또한 참뽕 프리미엄 죽염비누는 2018년부터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과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되어 큰 호평을 받은 특허 상품이다.

한명에 대표와 김동기 부부는 "앞으로 애견 샴푸, 린스, 입욕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며 향토 기업으로써 지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추진

부안군, 온실가스 저감·주택용 에너지 소비 경감 위해

부안군은 온실가스 저감 및 주택용 에너지 소비 경감을 위한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가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부안군에 추가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4일부터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지방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태양광 100만원, 태양열 132만원, 지열 181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한 참여업체가 아닌 경우, 국비·지방비를 받을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은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108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방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선착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3 고창 방문의 해 특집 'KBS 열린음악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 23일 저녁 지역주민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군민 모두 하나 되는 KBS 열린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음악회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송가인, 알리,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진성, 김중서, 김장훈, 김민희, 강혜정, 에스페로 등의 출연진이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으며 철쭉과 고창읍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밤밤을 감동과 환호로 물들였다.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는 5월 28일 오후 5시 40분 KBS1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은 좌석 4000여 석을 다 채우고도 이외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입석 방청



'군민 모두 하나 되는 KBS 열린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열린음악회는 군민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 역할을 마련하는 행사였다"며 "교통·주차·입퇴장 등에 불편한 점이 많았

을 텐데도 질서정연하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관객, 행사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점검해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민이 함께 읽을 한권의 책'

'불편한 편의점 1'·'긴긴밤'·'고민책방' 선정

정읍시가 2023년 시민과 함께 읽을 한권의 책으로 일반도서 '불편한 편의점 1' 청소년도서 '긴긴밤' 아동도서 '고민책방'을 각각 선정하고 2023년 한권의 책과 함께 하기 위해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지난 22일에 어린이 및 시민 약 100여명과 함께 한권의 책 선포식과 아동도서로 선정된 고민책방 이주희 작가의 강연과 체험을 진행하였다.

정읍시 한권의 책은 올해로 8년째 시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 부문을 신설하여 연령별 시민들의 눈높이에 따른 대표도서로 독서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 일반도서 김효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1'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따뜻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감동인 소설이다. 청소년도서로는 무리 작가

의 '긴긴밤'은 코블스와 권권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사랑을 주고 받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끈끈한 연대와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며 청소년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청소년소설이다. 아동도서는 이주희 작가의 '고민책방'은 아이들의 고민들을 옛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고민의 해결을 찾는 과정을 그려낸 그림책으로 시간이 흐르지만 여전히 옛이야기가 주는 힘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2023년 한권의 책 독서운동은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한권의 책 별책부록 등의 독서탈레이를 시작으로 일반 대표도서 작가와의 만남(6월), 청소년독서캠프(8월~9월), 문학기행(11월), 마무리행사(12월)로 전시민과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독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2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성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서 희귀 조류를 관찰하는 '제2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행사가 지난 21~23일(3일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펼쳐졌다.

고창군 문화재청,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이번행사는 작년에 이어 2회로 개최되는 행사로 접수 당일 신청이 마감되는 등 전국 탐조인들의 인기가 뜨거웠다.

전문 탐조인부터 가족, 친구 등 총 38팀 136명이 참가하였으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탐조 활동을 진행했다.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의 활동, 휴식하는 모습 등이 관찰되어 고창갯벌에 참가자들이 가졌던



기대감을 충족 시켰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관찰된 기록을 측정하여 시상도 진행했다.

조사된 고창 각지의 철새 기록은 갯벌 기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심의

정읍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20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11명과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관(감정평가사 7명)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 4명)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32만, 196필지)와 개별주택가격(25,219호)은 지난해 1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관내 모든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특히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올해 우리 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6.38%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3.36% 하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시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고,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